

뉴욕, 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

* 가나다 순

뉴욕

교회이름	담임목사	교회 주소	전화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	김영훈	300 Genesee Ave. Staten Island, NY 10312	347-233-1117
뉴 드림 교회	김남석	130 W. Old Country Rd. Hicksville, NY 11801	516-504-5612
뉴욕 감리교회	강원근	992 Old Country Rd. Plainview, NY 11803	516-681-0164
뉴욕그레이크교회	양민석	715 Northern Blvd. Great Neck, NY 11021	516-466-8063
뉴욕남산교회	박휘준	939 83rd St. Brooklyn, NY 11228	718-680-0328
뉴욕만백성교회	이종범	1250 Rockland Ave. Staten Island, NY 10314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	김대회	11 Powells Ln. Old Westbury, NY 11568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	김영식	3404 Bailey Ave. Bronx, NY 10463	718-796-5600
뉴욕성서교회	김종일	1201 Carlls' Straight Path, Dix Hills, NY 11746	631-243-5683
뉴욕한인교회	이용보	633 W. 115 St. New York, NY 10025	212-662-1422
로체스타제일교회	이진국	174 Pinnacle Rd. Rochester, NY 14623	585-662-5560
로체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	김동기	1274 Penfield Center Rd. Penfield, NY 14526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장재웅	486 Town Line Rd. Commack, NY 11725	631-499-1260
메트로폴리탄한인교회	한영숙	150 E. 62nd St. New York, NY 10065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	이용연	38 Jackson Rd. Poughkeepsie, NY 12603	845-463-0027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	지영재	711 Niagara Falls Blvd, Buffalo, NY 14226	716-748-5886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이호성	3087 Ocean Ave. Brooklyn, NY 11235	718-332-3270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	정광원	291 Main St. Staten Island, NY 10307	718-984-3333
씨라큐소스망연합감리교회	양현주	4845 W. Seneca Tpke. Syracuse, NY 13066	315-469-7536
아스토리아한인교회	진성인	30-44 Crescent St. Astoria, NY 11102	718-626-127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	홍경민	10 Old Plank Rd. Clifton Park, NY 12065	518-688-3091
웨체스터중앙교회	김철식	250 Bryant Ave. White Plains, NY 10605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	김은천	150-50 35th Ave. Flushing, NY 11354	718-359-8388
함께세우는교회	문플	48 St. Marks PL New York, NY 10003	201-572-8804
후러싱제일교회	김정호	38-24 149th St. Flushing, NY 11354	718-939-8599

뉴저지

교회이름	담임목사	교회 주소	전화
가득한교회	김성철	105 Diamond Hill Rd., Berkeley Hgts. NJ 07922	908-912-6775
갈보리연합감리교회	도상원	572 Ryders Ln., East Brunswick, NJ 08816	732-613-4930
그레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	장학범	105 Fairview Ave., Westwood, NJ 07675	201-358-8733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	왕태건	5340 White Horse Pike, Egg Harbor City, NJ 08215	609-965-1222
뉴저지베델교회	정성만	396 Broad Ave., Leonia, NJ 07605	201-242-8866
뉴저지연합교회	안성훈	147 Tenaffly Rd., Englewood, NJ 07631	201-816-1284
뉴저지영광연합감리교회	윤석기	250 Stuyvesant Ave., Lyndhurst, NJ 07071	201-939-9726
리빙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이희조	94 E. Mt. Pleasant Ave., Livingston, NJ 07039	973-994-0450
만모스 은혜연합감리교회	김일영	76 Wyckoff Rd., Eatontown, NJ 07724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	최상훈	186 Park Ave., Randolph, NJ 07869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	이기성	491 Alps Rd., Wayne, NJ 07470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	안명훈	S. 52 Paramus Rd., Paramus, NJ 07652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	이성일	317 Lackawanna Ave., West Paterson, NJ 07424	973-256-6831
요벨한인연합감리교회	한명선	109 Hardenburgh Ave., Demarest, NJ 07627	201-767-6822
제자교회	이영기	185 W. Madison Ave., Dumont, NJ 07628	201-374-1330
주님의 은혜 교회	최준호	710 Undercliff Ave., Englewood, NJ 07020	973-563-5365
참빛한인연합감리교회	전영철	970 Ave. C, Bayonne, NJ 07002	201-339-4318
체리힐제일교회	고한승	1995 E. Marlon Pike, Cherry Hill, NJ 08003	856-424-9686
티넥한인교회	이재덕	201 Degraw Ave., Teaneck, NJ 07666	201-440-6320
엘림연합감리교회	이후석	466 W. Grand Ave., Rahway, NJ 07065	732-396-0444

아펜젤러 장학금 기부

* 가나다 순

뉴욕

- *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김영훈목사)
- * 뉴욕그레이크교회 (양민석목사)
- * 뉴욕만백성교회 (이종범목사)
- * 뉴욕감리교회 (강원근목사)
- * 뉴욕베델교회 (김영식목사)
- * 뉴욕성서교회 (김종일목사)
- * 뉴욕한인교회 (이용보목사)
- *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장재웅목사)
- *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연합감리교회 (박혜영목사)
- *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한영숙목사)
- * 미드허드슨교회 (이용연목사)
- * 부르클린연합감리교회 (이호성목사)
- * 스타튼아일랜드한인교회 (정광원목사)
- * 후러싱제일교회 (김정호목사)

뉴저지

- * 갈보리교회 (도상원목사)
- * 만모스 은혜 교회 (김일영목사)
- * 베다니교회 (이재임목사)
- * 아콜라교회 (안명훈목사)
- * 아펜젤러기념 내리연합감리교회 (이성일목사)
- * 체리힐 연합감리교회 (고한승목사)
- * 티넥한인교회 (이재덕목사)



선교 130주년 The 130th Anniversary of Appenzeller's Mission

아펜젤러

선교 130주년 기념대회

IN COMMEMORATION OF THE 130TH ANNIVERSARY OF APPENZELLER'S MISSION



축하예배 (Celebration Worship)

- 일시** 2015년 10월 4일 오후 5시
- 장소** 뉴욕 후러싱 제일교회 (김정호 목사)
38-24 149th St., Flushing, NY 11354 / T. 718-939-8599
- 설교** 김홍기 목사 (전 감리교 신학대학 총장)
- 축하송** 감리교 연합성가대, 뉴욕장로성가단

목회자 신학생 포럼 (Forum)

- 주제** 웨슬리의 신학적 조명에서 본 아펜젤러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우리의 과제
- 일시** 2015년 10월 5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뉴저지 아펜젤러기념 내리연합감리교회 (이성일 목사)
317 Lackawanna Ave., West Paterson, NJ 07424 / T. 973-256-6831
- 강사** 김홍기 교수 (한국 교회사연구원 부원장)
박대성 목사 (베다니 연합감리교회, MD)

주관: 뉴욕, 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KUMC) 연합회

후원: 중앙일보 THE KOREA TIMES 크리스천 위클리 아멘넷 기독교일보 기독교뉴스 교회일보 단비TV ebsn



Bishop Jeremiah J. Park



THE UNITED METHODIST CHURCH
HARRISBURG AREA – SUSQUEHANNA CONFERENCE
303 Mulberry Drive, Suite 100 • Mechanicsburg, PA 17050-3198
Phone (717) 766-7871 • Fax (717) 766-3210 • Email: bishoppark@susumc.org

Christy Mackey
Executive Administrative Assistant
cmackey@susumc.org

Rev. Gregory C. Myers
Clergy Assistant
gmyers@susumc.org

Kristin Sample
Administrative Assistant
ksample@susumc.org

박정찬 감독
(UMC 서스해나연회, PA)

뉴욕 뉴저지 지역의 모든 한인 감리교회들이 연합하여 아펜젤러 선교 13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함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감리교인으로 태어나 자랐습니다만 현재 펜실베이니아주 중부와 동북부를 아우르는 지역에서 연합 감리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 아펜젤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고 부름받은 마을 랭캐스타로 부터 불과 50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의미를 부여해 제가 섬기는 지역의 감리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130년 전 아펜젤러를 통해 조선 땅에 뿌려진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와 맺은 선교의 열매”라고 말하곤 합니다. 과연 한인 감리교인 모두는 아펜젤러 선교의 열매라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의 백 오십 만 감리교인들과 더불어 미주와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감리교인 모두가 아펜젤러의 선교를 기리고 그 선교의 열매를 증거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펜젤러가 조선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130년이 지난 후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놀라운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한인 감리교회의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경이의 역사를 만드는 능력 (Wonder Working Power)입니다. 복음을 통한 선교의 꿈과 비전과 헌신과 희생이 그리고 선교의 동반자들의 기도와 지원이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 변화를 위해 너무나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펜젤러의 선교가 일구어 낸 한국 사회와 역사의 변화를 확인하면서 과연 선교는 가장 강력한 세상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준 모교회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적 사명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펜젤러의 조국에서 선교사적 의미를 지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이번 아펜젤러 선교 130주년 기념대회가 선교의 열정과 헌신이 뜨겁게 타오르며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5년 10월 4일

박정찬 감독(Bishop Jeremiah J. Park)

대회장 환영사



주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을 얻어 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와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하여 드린 첫 기도문

이재덕 목사
(대회장)

오늘 우리는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1858 - 1902)선교 130주년 기념대회를 뉴욕 뉴저지의 한인 연합 감리교회 연합으로 후러싱제일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열게 된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는 130년전 우리 민족이 복음을 모르고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을 때에 복음의 횃불을 들고 먼 태평양 바다를 건너와 가난하고 무지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하여 순교의 피를 흘리신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제 아펜젤러의 후예된 우리들이 그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또다시 영적인 위기와 세기의 혼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흐려진 영적인 복음의 진리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아펜젤러 선교사가 뉴저지 DREW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조선의 백성들의 영혼구원을 위하여 달려갔던 그 자리(뉴저지) 그 출발점에 다시서서 그의 선교정신 순교정신을 이어받아 이시대의 무너진 성전들을 다

시 일으켜 세우고 그의 가슴에 불타올랐던 그 선교의 열정을 다시 불러 일으키는 대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아펜젤러선교사 부부가 제물포(인천) 항구에 내려 이땅을 처음 밟으며 드렸던 그 기도 “주여, 이백성들을 얻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빛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의 복음적인 기도가 아직도 어둠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억압속에 있는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속히 이루어 지고 비추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펜젤러 선교 기념대회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횃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대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돕고 지원하신 모든 교회와 개인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대회장/ 이재덕 목사

아펜젤러 선교 130주년 기념대회

IN COMMEMORATION OF THE 130TH ANNIVERSARY OF APPENZELLER'S MISSION

제 1 부 축하예배 (Celebration Worship)

사회: 이재덕 목사(대회장)

Liturgist: Rev. Jaeduk Lee

찬양인도: 후러싱제일교회 (김진우 목사외)

- ▶ 전 주 반 주 자
Prelude Pianist
- ▶ 예배의부름 사 회 자
Call to Worship Liturgist
- *▶ 개 회 찬 송 다 같 이
Hymn (새, 통) 21 장 Together
- ▶ 기독교 대한감리회(KMC) 교리적 선언(1930) 이용보 목사
..... (뉴욕 KUMC 회장)
- 1.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오, 섭리자이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오,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 2. 우리는 하나님을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 3.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신을 믿으며
- 4.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은혜를 믿으며
- 5.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 6.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가 된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으로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 7.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 8.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 ▶ 기 도 도상원 목사
Prayer (뉴저지 KUMC 총무)
- ▶ 성경봉독 마 5:13-16 임문숙 권사
Scripture Reading (뉴욕연회 한인여성교회 연합회)
- ▶ 찬 양 예수 나를 위하여, 신자되기 원합니다 연합성가대
Anthem (단장:이용연목사 지휘: 이충훈집사)
- ▶ 말 씀 [성화의 빛을 발하자] 김흥기 목사
Sermon (전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
- ▶ 합심기도 교회의 회복과 부흥, 선교적 사명감당위해 양민석 목사
Prayer in Union (뉴욕 웨슬리 부흥전도단 전단장)
- ▶ 봉 헌 송 뉴저지 사모 찬양단
Offertory Music (지휘:이은희목사, 반주: 이미리사모)
- ▶ 봉 헌 기도 조건삼 목사
Offertory Prayer (뉴욕연회 한인코코스 회장)

제 2 부 헌신과 축복, 파송

사회: 장재웅 목사(준비위원장)
 Presider: Rev. Jaewoong Chang

- ▶ 트럼펫 유효선 집사
Trumpet (롱아일랜드(코맥)연합감리교회)
- ▶ 아펜젤러 3분 영상 전용재 감독회장
 (기독교 대한감리회(KMC))
- ▶ 장학금전달 대회장
Scholarship Presentation - 아펜젤러선교사(Appenzeller, Henry Dodge, 1889~1953)묘교
 - 드류대학교 신학대학원(The Theological School, Drew Univ)
 - 하비에어A 비에라(Rev. Dr. Javier Viera, Dean), 통역: Grace Ko
- ▶ 특 송 드류 신학대학원 한인중창단
Praise Song
- ▶ 격려사 Bishop Jane Allen Middleton
Encouragement Word 대독: 김성찬 감리사 (UMC 뉴욕연회)
 서신축사(순서지): 전용재감독(기독교 대한감리회 KMC 감독회장)
 박정찬감독(UMC 서스해나연회, PA)-축하메세지
 제인미들튼 감독(UMC 뉴욕연회)
 토마스 캠프(GBGM 총무)
 송충석감독(세계한인선교사회 대표회장)
 하비에어 A비에라(드류 신학대학원 학장)
- ▶ 축복송 신자여 용진하라, 주님의 크신 은혜 뉴욕장로성가단
Blessing Song (단장: 오응환장로, 지휘: 이정진장로)
- ▶ 광고 사회자
Announcement
- *▶ 파 송 가 (새) 505 장, (통) 268 장 다 같이
Sending Forth
- *▶ 축 도 나정용 목사
Benediction (동북부 감리교 원로목사회 부회장)

* 표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알리는 말씀 (Announcement)

- 1) 지난 세월동안 에벤에셀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특별히 오늘 오셔서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 귀한 찬양을 준비해주신 감리교 연합성가대와 뉴욕장로성가단, 드류신학교 한인중창단, 뉴저지 사모합창단 함께 기쁨을 나누어 주신 모든 목회자와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2) 귀한 장소와 간단한 도시락을 준비해주신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목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예배후 친교를 준비하지않고 도시락(김밥)을 준비한 이유는 식사비용을 아펜젤러선교사 장학금과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하기 위함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 3) 내일 10월 5일(화) 오전 10시 30분에 뉴저지 아펜젤러기념 내리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자 및 신학생 포럼이 있습니다.
 *주제: 존 웨슬리의 신학적조명아래서 본 아펜젤러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우리의 과제
 *강사: 김흥기목사(전 감리교 신학대학교 역사신학교수 및 총장)
 박대성목사(베다니연합감리교회 MD, 아펜젤러생가 한국 최초소개)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 H. G. 아펜젤러(1858-1902)의 삶

배재학당과 정동제일교회 창설자

1858년 2월 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스위스계 아버지와 독일계 어머니로부터 출생하여, 미국에 있는 플랭크린 마살대학을 졸업(1878)했다. 두루 신학교에 진학(1882)하였으며, 1884년 12월 엘라 단지(Ella Dodge)와 결혼했다.

그는 1884년 미 감리회 선교사로 임명되어 해외선교부(총무) 파울러 감독에게 목사 안수를 받았다. 1885년 2월 27일 아라빅호 배편으로 일본에 도착하여, 잠깐 머물다가 1885년 4월 5일 미츠비시 배편으로 부산을 경유 인천에 그의 부인과 함께 도착했다.

이 때 아펜젤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얻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라는 첫 기도를 했다. 그러나 감신정변 등 우리 나라 정치 상황이 불안하여 미국 공사(G. C. Foulk)의 권유로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같은 해 7월 19일 서울에 도착했다.

H. G. 아펜젤러 선교사의 주요 활동과 업적을 요약하면, 첫째, 배재학당의 창설(1886. 6. 8)을 예시할 수 있다. 배재(培材)학교는 고종 임금이 지어준 이름으로 정부의 정식인가를 받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이다. 둘째, 한국감리회 최초의 정동제일교회의 설립(1887.10.9)이다. 셋째, 한국의 문화 연구와 독립운동의 적극 지원이다. 그는 협성회(協成會)를 조직하고 서구식 의회법을 제일 먼저 시행하였다.

그리고 벵커와 함께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도왔다. 넷째, 성서 번역사업과 '조선그리스도인 회보'를 순 한글로 창간(1897.2)하여 당시 한문(漢文)위주의 사회에서 한글을 장려

하고 교회 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 계몽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밖에도 마가 복음서를 번역하고, 언더우드, 헤론, 스크랜톤 등과 성서번역위원회를 조직(1890)하여 성서 번역에 공헌하였다.

그는 한국에서 선교 활동 중 1902년 6월 첫 주일, '레이놀즈' 미 남장로회 선교사 주재 구역의 목포에서 개최되는 '성서번역위원회'에 참석할 계획에 있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무어 감독 등과 '무지내교회' 방문(1902. 6. 1)하게 되었는데, 이때 경부선 철도건설 현장(시흥)을 통과하다가 주장이 엇갈려 일본인 노무자들에게 마구 구타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재판의 증언 때문에 목포 출발이 지연되어 다른 선교사보다 늦게 구마가와마루(熊川丸) 배를 타고 가던 중 어청도 근처 해상에서 밤중의 짙은 안개로 인하여 기소가와마루(木曾川丸) 배와 정면 충돌, 침몰되어 1902년 6월 11일 밤 순직하였다. 이때 유일한 생존자는 보울비(J. F. Bowlby : 미국 인디애나로 돌아가던 운산광산 근로자)였고

아펜젤러 선교사 외에 한국인 14명, 일본인 4명, 선원 4명도 실종(사망)했다.

성서 번역에 공적이 큰 J. S. 게일 선교사는 아펜젤러의 순직에 대하여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는 그의 생명을 성경 번역을 위해서 바쳤다. 이제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JANE ALLEN MIDDLETON
 RESIDENT INTERIM BISHOP

THE UNITED METHODIST CHURCH

NEW YORK AREA

20 SOUNDVIEW AVENUE
 WHITE PLAINS, NEW YORK 10606
 TEL: 914-615-2221 • 888-696-6922
 FAX: 914-615-2246
 www.nyac.com
 E-mail: bishop@nyac.com

ROBERT M. WALKER
 ASSISTANT TO THE BISHOP
 CHERYL A. FORTUNE
 ADMINISTRATIVE ASSISTANT
 TO THE BISHOP

제인미들튼 감독
 (UMC 뉴욕연회)

October 4, 2015

Dear Sisters and Brothers of the Korean Caucus:

Grace and peace to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ank you for your invitation to attend the 130th mission celebration of Rev. Henry Appenzeller. I regret that because of a previous commitment with the Northeastern Jurisdiction College of Bishops I cannot be with you to celebrate this important anniversary.

All of your sisters and brothers in The New York Annual Conference raise our voices in praise of God for the ministry of Rev. Henry Appenzeller. Because of his missionary zeal in spread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our conference has been blessed by the presence of thousands of Koreans in our midst, both lay and clergy.

We are grateful for the extraordinary blessing of one whose commitment to Christ and to Christ's people has spread throughout Korea and has been returned to us as well. May this commitment to go into all the world to proclaim the Good News continue to live in all of our congregations as we reach out to our neighborhoods and beyond.

In Christ's love,

Jane Allen Middleton
 Jane Allen Middleton



Congratulatory Message

As the President Bishop of the Korean Methodist Church, I am blessed and grateful to send this congratulatory message - in this gathering of the eastern area pastors and lay members of th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commemorating Rev. Henry G. Appenzeller and his dedicated service for Korea. Through this commemoration of the 130th Anniversary of Rev. Appenzeller's mission, I would like all of us to know better who he was and how much fruit his mission has produced.

There are a couple of more wonderful servants of God who had paved the road for Rev. Appenzeller to come to Korea and proclaimed the Good News to Koreans. In this light, I want you to remember Rev. John F. Goucher and Missionary Robert S. Maclay and their good work and passion for overseas mission. Also, I would like to mention Ms. Mary Scranton and her son, Rev. William Scranton who came to Korea a little later than Rev. Appenzeller dedicated their lives for Korean mission.

From various places and time, these servants of God were called for Korea. At that time, there was no hope, no light in Korea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piritually. However, God warmed their hearts and enabled them to see light

where there was no light. In this faith, they worked together and didn't hesitated risking their lives. Truly,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This is what the ancients were commended for. (Hebrews 11:1-2)

As by faith they offered what were asked by God for Kroean mission, so by faith we want to commemorate them and move forward. On the soil of their dedication, the Korean Methodist Church has grown to be the leading church which has 6,500 local congregations with about 1.5 million members in 130 years.

As the gospel was passed on to us through overseas churches like United Methodist Church, we feel obliged to pass this gospel to as many countries and people of the world as possible. Up to this time, Korean Methodist Church has sent about 1,100 missionaries to more than 72 countries. We pray and work hard to do more and I want you pray for us. Thank you for being a good model for us. May God bless United Methodist Church and each local congregations as he did and now and forever.

President Bishop Yong Jai Jun
The Korean Methodist Church

축사

전용재 감독

(기독교 대한감리회 KMC 감독회장)



The officers and directors of th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are pleased to join the New York and New Jersey Korean United Methodist Association in celebrating the 130th anniversary of the arrival in Korea of Missionaries Henry G. and Ella Dodge Appenzeller. Their presence marked the beginning of Methodism in Korea. The Appenzeller family would contribute greatly to the spiritual and social welfare of Korea. They continue to be remembered as honored members of the missionary community of what is now Global Ministries, the worldwide mission agency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The school that the Rev. Appenzeller founded in 1885 exists today as do congregations he organized after Christian evangelism became legal in Korea in 1887. He translated the Holy Bible into a Korean version usable for ordinary people; he started a Korean language publishing house and bookstore. The Appenzeller mission philosophy included education for women, training in technology, and experimentation with democratic systems. Though an educator and pastor by training, Rev. Appenzeller and his colleagues worked to improve health service, being especially effective in saving many lives in the cholera epidemic of 1895.

Henry G. Appenzeller's untimely death in a boating accident on June 11, 1902 deprived the church of one of its mission pioneers in Asia. He was only 44, and on his way to a meeting of the Korean Bible translation committee. His memory shines brightly in the Methodist pantheon of mission saints. His legacy has multiple courses. Two of his children became educators in Korea, his daughter Alice as president of Ewha University and his son Henry as a leader at Paichai School, started by his father.

The Appenzeller legacy also lives in the faithful lives of millions of Korean Methodists over the decades and today, both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ose gathered on October 4, 2015 at the First Flushing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New York City.

We thank God for Henry and Ella Appenzeller, for their witness and courage, and for the faithful discipleship of the many Methodist people of Korean ancestry past and present.

In mission together,

Thomas Kemper
General Secretary

축사

토마스 켐퍼

(GBGM 총무)



할렐루야!

송충석 감독

(세계한인선교사회 대표회장)

할렐루야! 아펜젤러 내한 130주년을 감사하며 축하하고자 모이신 웨슬리의 후예들이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현재를 읽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며 용기있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역사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감리교 생명의 뿌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선교적인 사명과 사랑의 혁명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18세기, 어둠이 짙은 때에, 하나님은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낸 타다 남은 나무조각 같은 요한 웨슬리를 통해 세계선교의 불씨로 영국과 세계를 살리셨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의- 뜨거운 영성, 함께하는 사회성, 냉철한 시대정신, 실천하는 신앙의 영성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의 외침을 몸소 실천한 웨슬리의 개척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곳곳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남으로 순종하고 선교적 교회와 삶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궈 가시는 웨슬리의 후예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떠남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19세기,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진 미국연합감리교회 최초선교사, 아펜젤러의 생명을 내놓은 떠남과 헌신으로 인해 한민족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감사드리며 아펜젤러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나아갈 길을 재조명해 보고, 또 다시 새로운 축복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계를 교구로 삼은 웨슬리의 우주적 세계관은 아펜젤러에 이어졌습니다. 이어 한 알의 밀알이 죽어짐으로,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오늘 이 자리 웨슬리의 후예인 저와 우리가 있게 하였으니 감동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 척박했던 시절, 오직 거룩한 부르심 따라 망망대해로

무작정 떠나야 했던 아펜젤러 선교사의 떠남, 순종, 헌신과 죽음을 기억해 보며,

지금 21세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며 나아가야할지 깊이 고민해봅니다.

역사적 위대한 선택이 있었던 곳에는 선교의 위기(Crisis of Mission) 또한 있었습니다.

130년전 위대한 선택으로 아펜젤러가 우리를 찾아와 전해 준 것은 생명이었고 십자가였습니다. 우뚝 솟은 교회 십자가로 반짝이는 곳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부흥의 불씨를 지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흐르는 눈물로 빛을 내는 십자가를 위해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야 할 때입니다.

21세기 지금은, 우리가 다시 선택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 어둠질던 조선땅에 완전연소된 한 생명의 두려움, 조선땅에 자유와 빛을 주고, 나아가 세계를 밝혀 주었듯, 이젠 우리가, 작은 불꽃 씨앗이 되어 이 시대에 빛을 발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개척정신과 선교정신을 이어받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 다시 광야로 과감하게 떠나는, 행동하는 신앙을 갖길 축복합니다. 세계를 품고 선교적 순례의 길을 걸으며 역사에 생명탑 놓아가는 부름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젠 세계가, 세계 속 웨슬리안으로 다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Making Choices"- 2015년 50회 케냐 감리교총회 주제였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 시대, 많은 도전이 있고, 영적 전쟁은 치열하기만 합니다.

위기와 동시에 기회로 급변하는 21세기, 더 긴급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어떻게 선택하고 나아갈 것인지 응답하길 요청합니다.

지금 오늘 이순간, 저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수 있을까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Lord"

세계한인선교사회 대표회장 송충석 감독

축사

축사

하비에어 A 비에라

(드류 신학대학원 학장)

that the Korean Unite Methodist Churches are gathering to celebrate this legacy.



On behalf of the faculty and students of The Theological School at Drew University, Dean Viera expresses deepest gratitude for the mission of Reverend Appenzeller.

Over the past 130 years, the Korean community has continually blessed Drew and the larger church in both intellectual and spiritual enterprises. We pray and give thanks for the relationships and support that have been born out of Reverend Appenzeller's life work, and we are thrilled

The Rev. Dr. Javier Viera
Dean, The Theological School, Drew University
Professor of Pastoral Theology